

“반갑다, 친구야” 개막전에서 만난 라이벌



광주 FC 박진섭 감독

프로축구연맹 일정 발표...동갑내기 두 감독 맞대결
박 감독, 흥행몰이 위해 첫 상대로 성남 1순위 꼽아
선수시절 피돌이 vs 진공청소기 별명 가진 라이벌

남자 축구, 도쿄 올림픽 예선 8강 선착

U-23 대표팀 조별리그 2차전 이란 2-1 꺾어

김학범호가 이란을 상대로 승전보를 울리며 도쿄올림픽 예선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12일 태국 송클라 틴술라는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이란을 2-1로 꺾었다. 이날 김 감독은 1차전에서 중국을 상대할 때와는 크게 다른 전술을 펼쳤다. 지난 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던 선수를 7명이나 출전시킨 것이다. 한국은 조규성을 원톱으로 세운 4-2-3-1 포메이션으로 전장에 나섰다. 정우영과 이동준이 각각 좌우 날개로 출전했으며, 미드필더로는 정승원과 맹성웅(안양), 원두재가 투입됐다. 좌우 풀백은 김진아(서울)와 이유현이, 센터백은 정태욱과 이상민(울산)이 맡았으며 골키퍼로는

송범근(전북)이 출격했다. 전반전부터 공격적으로 골문을 두드린 한국은 전반 22분 맹성웅과 이동준의 활약으로 선취점을 따냈다. 골문이 열리자 한국은 더욱 공세를 끌어올렸다. 전반 35분 조규성이 페널티아크 근처에서 수비수 다리 사이로 찔러 넣은 원발 중거리슛이 골대로 빨려 들어가며 한국은 2-0으로 앞서나갔다. 이란은 후반 9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울린 크로스를 레자 셰카리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1점을 따라붙었다. 한국은 15일 오후 7시 15분 태국 랑싯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상대는 승점 4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임성재 ‘악몽의 벙커’

PGA 소니오픈, 16번홀 트리플보기 9→27위 추락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새해 첫 대회에서 막판 실수로 톱10 입상을 놓쳤다. 임성재는 13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이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투어 소니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를 쳐 공동 21위(5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2019-2020년 시즌 세 번째이자 올해 첫 톱10 입상이 유력했던 임성재는 16번홀(파4) 트리플보기가 못내 아쉬웠다. 1번(파4), 3번홀(파4) 버디로 선두 브렌던 스틸(미국)에 3타차로 따라붙은 임성재는 톱10은 물론 우승도 가능한 순위였다. /연합뉴스

6개홀 연속 파 행진을 이어가던 임성재는 16번홀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 옆 벙커에 빠지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벙커에서 친 세번째샷이 그린 왼쪽 벙커로 날아갔다. 이번에는 한 번에 벙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수를 한 임성재는 5번만에 그린에 올라와서는 1m가 채 되지 않은 더블보기 퍼트마저 놓쳤다. 한꺼번에 3타를 잃어버린 임성재는 공동 9위에서 공동27위로 추락했다. 임성재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3m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순위를 끌어올려 그나마 위안이 됐다. /연합뉴스

K리그1 2월29일 개막...광주, 3월 1일 홈에서 성남전

‘동갑내기’ 라이벌 대결로 광주FC의 2020시즌이 시작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3일 하나원큐 2020 K리그1 정규 라운드(1~33라운드)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식 개막전은 2월 29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정규리그 3연패에 성공한 전북 현대와 FA컵 우승팀 수원 삼성의 대결로 2020시즌의 막이 오른다. 지난해 최종전에서 우승컵을 내줬던 울산 현대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FC 서울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K리그1으로 복귀한 광주FC는 3월 1일 성남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 2019 K리그2 ‘우승 감독’ 박진섭 감독은 바람대로 ‘동갑내기 초보 사령탑’ 김남일 감독과 흥미로운 개막전을 치르게 됐다. 박 감독은 일정 발표에 앞서 개막전에서 만나고 싶은 상대로 성남과 포항 스틸러스를 꼽았다. 흥행을 위한 ‘초반 분위기’를 강조한 박 감독은 “이슈도 되고 그런 면에서는 성남이 팬층을 갖겠다”고 1순위로 성남을 언급했다. 그 배경에는 올 시즌 성남에서 감독 데뷔전을 치르게 된 김남일 감독이 있다. 두 사람은 각각 ‘피돌이’와 ‘진공 청소기’라는 애칭으로 그라운드를 수성했던 친구이자 라이벌이다. 박 감독은 “나와 동갑이기도 하고 라이벌적인 것도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고, K리그1 무대 첫 상대로 김 감독을 만나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포항은 박 감독과 광주에 ‘속제’ 같은 팀이다. 광주는 포항을 상대로 아직 승리를 챙긴 적이 없다. 광주는 포항과의 역대 전적에서 5무 10패를 기록하고 있다. 2016시즌 개막전에서는 다 잡았던 포항을 놓친 적이 있었다. 정조국의 멀티골로 2-0으로 앞서던 광주는 후반 24분에 기록된 수비수 이오쁨의 퇴장 약제 속 후반 42분, 45분, 47분 연달아 골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무승부로 끝냈지만 기다렸던 포항전 첫 승을 아쉽게 놓쳤다. 당시 상대 벤치에는 박 감독이 코치로 있었다. 박 감독은 “한 번도 못 이겼으니까 이를 갈아야 할 것 같다”며 포항전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간절한 포항전 승리를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광주는 11개 팀 중 가장 마지막으로 포항을 상대하게 됐다. 광주는 5월 10일 적지에서 포항과 시즌 첫 대결을 벌인다. 광주는 시즌 첫 원정경기에서는 지난해 우승 경쟁을 했던 부산 아이파크를 만난다. 3월 7일 구덕운동장에서 K리그1으로 무대를 바꿔 광주와 부산의 라이벌전이 재개된다. 한편 올 시즌에도 K리그 팬들의 ‘불금’을 책임질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이 계속된다. 광주는 7월 3일 오후 7시 새로 개장하는 전용구장에서 부산과 ‘금요일 야간’ 경기를 진행한다. /김여을 기자 wool@



성남 FC 김남일 감독

광주, 3월 7일 부산 원정...리그1으로 무대 바꿔 대결
포항엔 역대 전적 5무 10패...5월 10일 경기 결과 관심
금요일 야간 경기 올해도 지속...광주는 7월 3일

‘명불허전’ 최민정

쇼트트랙 4대륙선수권대회
女 종목 금 5개 짝쓸이 종합 우승

‘돌아온’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4대륙선수권대회 전 종목 우승을 달성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1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4대륙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여자 1000m, 여자 3000m 슈퍼 파이널, 여자 3000m 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전날 여자 1500m와 여자 500m에서 우승한 데 이어 여자부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차지했다. 최민정은 여자 1000m에서 1분32초71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레이스 중반까지 뒤에서 기회를 노리던 최민정은 결승선까지 3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 노려 2위로 올라섰다. 이어 한 바퀴를 남기고 다시 아웃코스에서 질주해 선두를 달리던 캐나다의 코트니 사라울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개인 3개 종목을 모두 우승한 최민정은 상위 8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 진출해 다시 금메달을 추가했다. 그는 경기 초반 독주를 펼쳐 다른 선수들과 두 바퀴 차이를 낸 뒤 5분17초130의 기록으로 여유롭게 우승했다. 2위는 김아랑, 3위는 서휘민이 차지했다. 최민정은 종합 순위에서 136점으로 초대 우승자가 됐다. 서휘민은 47점으로 2위, 김아랑은 42점으로 4위에 올랐다. 최민정은 이어 열린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김아랑, 김지유(성남시청), 노아름(전북도청)과 함께 4분11초40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남자부에서는 남자 1000m에서 황대현이 1분27초719로 우승했고, 박지원(성남시청)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 전 종목을 석권한 황대현은 남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 7위를 기록했지만, 총점 103점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민정(성남시청)이 12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4대륙선수권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은 슈퍼파이널에서 우승하며 47점으로 종합 3위, 김다겸(연세대)은 슈퍼파이널 2위를 차지한 뒤 총점 37점으로 종합 4위 자리에 올랐다. 남자 5000m 계주에선 황대현, 박지원, 김다겸, 이준서(한국체대)가 6분58초666의 기록으로 캐나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4대륙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비유럽국가 선수들이 출전해 경쟁하는 대회로, 올해 신설됐다. 중국, 캐나다의 간판급 선수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한국이 금메달을 독식했다. /연합뉴스